

“인재육성은 기술강국으로 가는 지름길”

서울광학산업(주), 장학생 10기생 배출

○○○ 취재 | 박지연 기자 |

서울광학산업(대표·이지웅)은 지난 4월 18일 충북 음성 본사 사무실에서 2008년 광학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서울광학산업은 해마다 국내에서 광학을 전공하고 박사 과정을 밟는 학생 중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한 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이 장학사업은 지난 1999년 1기생 배출을 시작으로 올해 10기생을 배출하며 어느덧 10주년을 맞았다.

올해의 주인공은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에 재학중인 홍기석씨. 알고 보니 홍기석씨는 광학계에서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홍경희 교수의 자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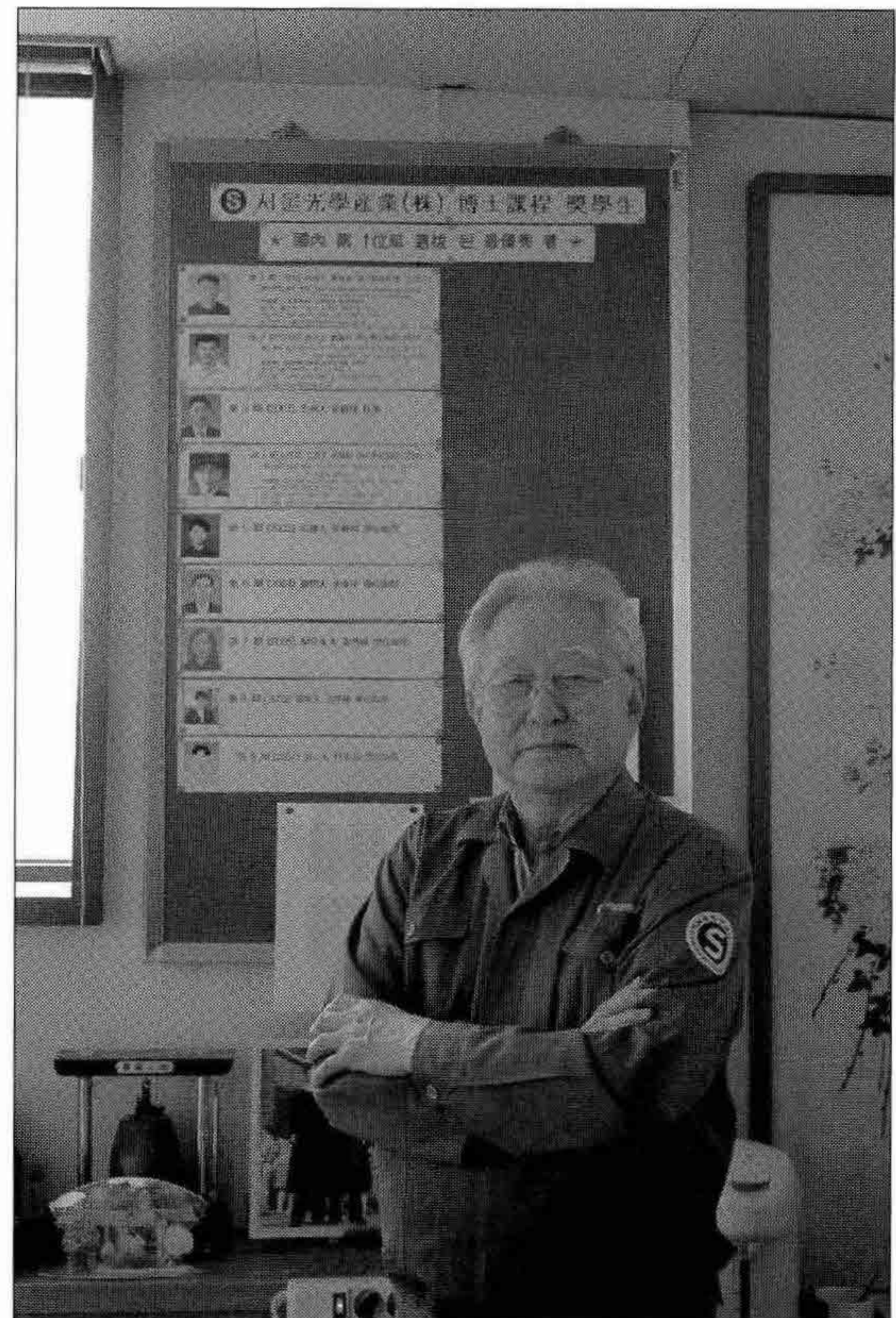
장학증서 수여식이 있던 날 홍경희 교수 부자가 나란히 서울광학산업을 방문하여 그 어느 때보다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올해의 장학생이 된 홍기석씨는 현재 광통신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더 나아가 광통신 관련 사업을 하고픈 포부를 밝혔다.

서울광학산업을 통해 배출된 장학생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한남대 2명, 서강대, 전남대, 인하대, 고려대, 경희대, 이화여대, 부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전국에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았으며, 이중 박사학위를 받은 6명 가운데 3명은 삼성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웅 사장의 교육에 대한 열의는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정도로 한 치의 흔들림이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중소기업 스스로 버텨나가기도 힘든 상황에 무슨 자선사업이냐”라며 끝없이 이어지는 주위의 질타에도 아랑



▶ 인재양성에 대한 끝없는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이지웅 사장은 누구보다 국내 광학업계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광학인으로 손꼽힌다.



▶ 아버지인 홍경희 교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홍기석 장학생이 이지웅 사장으로 부터 장학증서를 수여받았다.



▶ 장학증서 수여식을 위해 홍경희 교수 부자와 이지웅 사장이 함께한 이 날은 그 어느 때보다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웃음꽃이 떠나지 않았다.

곳 하지 않고 10년간 한결같은 마음가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외부장학사업뿐만 아니라 직원 중에서도 누구라도 학업에 뜻이 있다고 하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서울광학산업을 '사관학교'라고 까지 부른다.

인재양성에 대한 끝없는 의지와 열정이 가득한 이지웅 사

장은 누구보다 국내 광학업계의 현실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광학인으로 손꼽힌다.

이지웅 사장은 "국내에는 광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력이 없다는 것이 늘 아쉬웠다"며 "인재개발은 기술개발의 원천이라 보고 장학사업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41회 과학의 날, 과학의 날 유공자 대거 포상

표준연의 이윤우 단장 등 총 79명에게 훈·포장 수여

• 짤막뉴스 •

교육과학기술부는 제41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 분야 최고의 유공자에게 수상하는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수상자로 윤기현 연세대 명예교수(68), 성낙호 미국 터프츠대 교수(67), 김제완 과학문화진흥회 이사장(75)을 선정하는 등 총 79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다음은 금번 수상자 명단이다.

◇ 과학기술훈장 창조장(1등급)

△윤기현 연세대 명예교수 △성낙호 터프츠(대) 교수 △김제완 과학문화진흥회 이사장

◇ 과학기술훈장 혁신장(2등급)

△이일항 인하대 교수 △배영호 코오롱 대표이사 △이재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허성광 맥스파워 대표이사 △바르네케 슈투트가르트대 명예교수

◇ 과학기술훈장 웅비장(3등급)

△오테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인 KAIST 교수 △안승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중앙연구소장 △박동욱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이덕환 서강대 교수 △강신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 과학기술훈장 도약장(4등급)

△박수문 포항공대 교수 △이상욱 서울대 교수 △현동석 한양대 교수 △최병익 한국기계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기준 전 케이피케미칼 대표이사 △고태국 연세대 교수 △국일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본부장

◇ 과학기술훈장 진보장(5등급)

△노동석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진구 동국대 교수 △한성민 에치케이씨 대표이사 △최인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민병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상덕 한전 전력연구원장 △닐 파팔라도 미국 메디텍 회장 △윤성희 테라급나노소재개발사업단 감사

◇ 과학기술포장

△이윤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우주광학연구단장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스마트무인기사업단장 △조영호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세권 부경대 교수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완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민병주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교육센터장 △백희영 서울대 교수

◇ 대통령 표창

△주국영 성수여고 교사 △김태근 고려대 교수 △오용수 삼성전기 상무 △홍사혁 에니텍시스 대표이사 △이만형 부산대 교수 △이해우 동아대 교수 △이현우 유니크 연구소장 △황인희 항공우주연구원 KHP 개발실장 △김봉진 화학연구원 책임기술원 △문희 전남대 교수 △성영은 서울대 교수 △윤현도 충남대 교수 △이의신 대우건설 수석연구원 △이희웅 전기연구원 재료응용연구단장 △강문석 과총 과학회팀장 △박세문 한국여성원자력전문인협회 부회장 △손경중 광주광역시 지방공업주사 △조장현 나노종합센터 기획부장

◇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김기문 포스텍 교수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 △최양도 서울대 교수 △송호영 울산의대 교수